

5과

##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 「들어가면서」

20년 전 리처드 마우가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신실한 믿음과 공손함은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이 책은, 진리를 말하면서도 사랑을 잃고, 옳음을 주장하면서도 사람과 관계를 잃는 논쟁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의 무례함을 지적합니다. 동시에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1) 진정성의 회복, 2) 관계 중심의 사역, 3) 경청하는 태도, 4) 삶으로 말하는 복음의 태도를 갖출 것을 제시합니다.

### 「성도의 배려」

고린도 교회에는 무례함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식사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1.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 고린도전서 11:20-22

<sup>20</sup>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sup>21</sup>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sup>22</sup>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으며 “서로 기다리라”(고전 11:33-34)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봅시다.

3. 사랑은 감정이기보다는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배려와 존중이 더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

### 「성도의 언어」

로마 교회의 안에는 친절한 언어가 부족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기보다, 비방하고 정죄했습니다.

로마서 14: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4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로마서 14: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 로마서 14:1-12를 읽어봅시다. 로마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들로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 음식에 관한 문제

#### 로마서 14:2-3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 날(절기)에 관한 문제

#### 로마서 14:5-6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2.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신앙의 배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서로를 무례히(비방과 업신여김) 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7가지 영적 경로

사람들은 모두 다릅니다. 이것이 창조와 원리이자 아름다움과 풍성함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성으로 인해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한 가지 잣대로만 판단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 1) 지적 경로
- 2) 관계의 경로
- 3) 섬김의 경로
- 4) 예배의 경로
- 5) 행동의 경로
- 6) 기도의 경로
- 7) 창조와 경의 경로

## 나눔 질문

1. 7가지 영적 경로 중 나에게 가장 익숙한 두 가지를 선택해 봅시다. 그리고 나와 다른 경로를 가진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오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눠봅시다.

## 「예수님의 무례하지 않은 사랑」

### 1. 예수님의 성육신

- 우리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 2. 예수님의 기다림 -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 3:20)

- 문을 부수지 않으십니다.
-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 그러나 결코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침묵 같지만 항상 계시며, 오래 참으시되 결코 식지 않으십니다.

### 3. 예수님의 친절함 -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사 42:3)

-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라도 꺾지 않고 지켜 주십니다.
- 꺼져가는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며 다시 살게 하십니다.
- 인생의 실패를 끝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다시 서게 하십니다.

## 「적용하기」

가까운 사이일수록 허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무례해지기 쉽습니다. 허물이 없다는 것은 가식 없이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식이 없는 것과 무례한 것은 다릅니다. 식구끼리는 내복 바람으로 지낼 수도 있고, 세수하지 않은 얼굴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구라 할지라도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국진 『사랑』 중에서

## 나눔 질문

1. 내가 가장 쉽게 무례해지는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2. 순모임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순 안에서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

##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태도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회복되고, 배려와 존중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무례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친절함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